



정교회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따띠안나 순교자

신현 축일 다음 주일

성 따띠안나 순교자

제5조, 조과복음 8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신현 축일 제2응송 / 155. B 125

· 제5조 부활 찬양송 / 82. A 215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신현 축일 찬양송 / 155. B 125

· 성당 찬양송

· 신현 축일 시기송 / 155. B 127

· 사도경: 에페소 4,7-13 / 158. 봉독서 488

· 복음경: 마태오 4,12-17 / 158. B 150

· 신현 축일 성모송 / 157. B 129

· 신현 축일 영성체송 / 157. B 129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 주는 구원의 말씀 성 따띠안나 순교자

요한묵시록에 보면 “알파요 오메가”(요한묵시록1:8)이시고 “영원무궁토록 계시는”(요한묵시록 1:6) 분이 스미르나 교회의 천사들에게 “너는 죽기까지 충성을 다 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월계관을 너에게 씌워 주겠다.”(요한묵시록 2:10)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동적인 표현이고, 운동선수와 경기장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룩한 순교자들은 운동선수들이라고 불리고 자신들의 순교에 대해 경기를 치룹니다. 그리고 경기에 대한 승리의 보상으로

생명의 월계관을 받습니다. 이들은 충성스러운 신자로 남고, 사탄의 계략에 의한 고문으로 검이 목을 내리쳐 그들의 영예로운 얼굴이 피로 물드는 때, 마지막까지 믿음이 오래갑니다. 영원히 시들이 않는 월계관은 순교와 피의 월계관으로 “생명의” 월계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1월 12일 축일로 기념하는 따띠안나 성인(3세기)의 다음의 성가가 이러한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에 의한 따띠안나 성인의 얼굴 성유해는 항상 빛나고 있습니다.”

신앙 회복을 위한 회개

주님의 공생애를 요약한다면 ‘사랑과 회생의 연속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 전반에 흐르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에서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엄한 모습을 보이실 때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의인인 척하는 사람들에게는 단호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가장 싫어하시는 위선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위선적인 믿음은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변질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을 체면 때문에 유지하거나, 적당한 취미로 여기거나, 심지어는 하느님의 사랑을 자신의 탐욕을 위해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변질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입술로는 하느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하느님에게서 멀리 떠나가 있다는 것이죠. 자선, 봉사, 기도 등등의 신앙 행위 자체도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해’ 하는 일이어서 겉치레 형식에 빠지고 맙니다. 하느님마저 속이려 드는 어리석음으로 마음의 눈이 멀어 버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돌아가야만 합니다. 자신을 위주로 했던 삶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르단 강에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으신 주님이 광야에서 40일 단식기도를 하시잖아요. 이제 공생애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첫 가르침으로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복음에 기록된 말씀이죠.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다가 왔다.”(마태

오 4,17)

회개는 잃어버린 나를 찾는 것이고 하느님께 돌아가는 신앙 회복입니다. 그동안 하느님께 소홀하고 등지며 살아왔던, 하느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왔던 그런 죄지은 인간이 하느님께로 되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란 말이죠. 한마디로 ‘뉘우치고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돌이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악함을 지적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겁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추하고 더럽고 악한 인간임을 발견하고 나를 부인하며 하느님께 자비를 구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란 말이죠. 이 세상에는 회개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짓은 회개를 미루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하늘나라에 가장 큰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면 하느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시 회개하는 때요, 잘못된 것을 내던져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시기입니다. 잘못된 것은 툭툭 털어 버리고 확실하게 끊어 버려서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성을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 안토니오스 우종현 대신부

새해를 위한 단순하면서 의미 있는 기원

부디 새해에 여러분에게 아래의 것들이 주어지길.....

여러분의 삶을 달콤하게 해줄 **행복**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줄 **시련**
여러분이 애정을 지니도록 해줄 **슬픔**
여러분을 지탱해줄 **희망**
여러분이 겸손하도록 만들어줄 **실패**
여러분을 열성적이게 해줄 **성공**
여러분에게 위안이 되고 편안함을 줄 **친구**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부(富)**
여러분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해줄 **열심**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되도록 해줄 **결심들**

영원하신 하느님과 진심 어린 친교를 이룬다면 이 모든 것들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영적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 아타나시아



안토니오스 우종현 대신부님과 안토니오스 임종훈 신부님의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1월 17일 축일을 맞이하시는 안토니오스 우종현 대신부님과 안토니오스 임종훈 신부님의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하느님께서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영적 자녀들을 오래도록 영적으로 올바르게 인도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소 식

대교구

■ 신자총회 공고

서울, 부산, 전주, 춘천, 울산 성당에서는 오늘 1월 12일 주일 성찬예배 후 신자총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여 2019년도 결산과 영적 사업의 결과와 2020년도 예산과 영적 사업을 의논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 18세 이상 세례 받은 교인들은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교구의회 공고

2020년 1월 22일 제16회 대교구의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대교구 소속의 각 성당 의회 구성원 여러분은 꼭 참석하여 우리 한국정교회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고 같이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20년 1월 22일(수)

12시 : 점심 식사 / 오후 1시 : 대교구의회

· 장소 || 대교구청 회의실

■ 겨울 수련회

겨울 수련회가 1월 31일~2월 2일(초, 중, 고등부)에 춘천 성 보리스 성당 사회복지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부모님들은 수련회에 학생들이 참여하여 영적으로 유익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각 성당 사무실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성 디오니시오스 성당

■ 세례를 축하합니다

지난 1월 4일(토)에 슬라브 교인 올라 유아가 크리스토퍼 사제 집전의 세례성사를 통해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지상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올바른 정교인으로 살아가길 기원합니다.

주간 예식

· 1월 17일(금) 성 안토니오스 대수사 축일

· 1월 18일(토) 성 아타나시오스,

성 키릴로스 알렉산드리아의 총대주교 축일

오전 9시 : 축일 조과, 성찬예배